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신문에
말을 걸다 4

제1강좌

전라도 천년

- 소매! 참말로 징허고 소지게 살았네

김 화 성

전 동아일보 기자

『전라도 천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길 21』

『길 위에서 놀다』 『책에 취해 놀다』

일 시 3월 13일(화) 저녁 7시

장 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주최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전라도 천년!!

· 오매! 찰말로 징허고 오지게 살았네!!

김화성(前동아일보기자)

- 차 례 -

전라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정말 전라도 땅은 풍수적으로 반역의 땅인가?
전주와 나주선비들의 허위의식
미륵의 나라 후천개벽의 땅!
중심은 썩고 변방은 꽃이 핀다!!

어릴 적 제 고향 마을은 50여 호 쯤 살았습니다. 김제 모악산 자락이었는데, 멀리서보면 마치 굴 껍딱처럼 오종종하게 달짝 붙어있었지요. 동네 앞은 툇 터진 들판이었습니다. 바로 징계밍게 외얏밧들(김제만경 너른 들판)의 들머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호남평야가 시작돼 부안해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석양의 해는 온 들판을 붉게 물들이며, 지평선 눈바닥으로 핏덩이처럼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리고 땅거미가 그물그물 내리는 저물녘, 붉은 노을을 등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삼과 팥이를 어깨에 맨 채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온종일 들판에서 꼬부랑 ‘ㄱ’자로 일하다가, 고단한 하루를 검은 실루엣에 싣고, 마른기침을 하며 새끼들 밥 먹이려, 굴 딱지 같은 집에 기신기신 들어오신 것입니다. 새끼는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쯤이면 닭 토끼 돼지 등 집안의 온 가축식구들이 배고프다며 왜장을 쳐댔습니다. 마루 밑 누렁이도 빈 밥그릇을 콧등으로 툇툇 달그락거리며 킁킁댔고, 하늘엔 어김없이 개밥바라기별이 눈물시리도록 반짝였습니다.

1970년대 초중반 내가 중·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니고 있을 때, 우리 동네는 눈에 띄게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쯤 주말에 집에 내려가면, 뒷집 혹은 옆집 식구들이 삼베바지 방귀 새듯 슬그머니 서울로 떠나버려, 빈집만 덩그마니 남아있었습니다. 고살길에서 천방지축 같이 뛰어놀던 피복쟁이 동무들도 하나 둘씩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나야 그래도 운이 좋아 대처로 공부하러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배움은 기껏 중학교 정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들의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짓거나 도회지주변 공장의 공돌이, 공순이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네 골목길마다 아이들의

노는 소리로 왱자지껄 떠들썩했지만, 언젠가부터 그 정답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적막강산으로 변했습니다. 가끔 행상들의 호객소리와 뚝개들의 깨갱거리는 소리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즈음 우리 동네는 어느 새 50여 호에서 30여 호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기차는 가고 뚝개만 남아 운다
기차는 가고 식은 팔죽만 남아 식는다
기차는 가고 시커멓게 고개를 넘는
깜부기, 깜부기의 대갈통만 남아 벗겨진다
기차는 가는데 빈 지계꾼만 어슬렁거리고
기차는 가는데 잘 배운 놈들은 떠나가는데
못 배운 누이들만 남아 샘물을 길는데
기차는 가고 아아 기차는 영영 사라져 버리고
생솔가지 저녁연기만 허물어진 굴뚝을 뚫고 오르고
술에 취한 홀애비만 육이오의 과부를 어루만지고
농약을 마시고 죽은 머슴이 홀로 죽는다
인정 많은 형님들만 곰보딱지처럼 남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무덤을 지키며
거머리 우글거린 논바닥에 꽃꽂이 서 있다.

-<김준태 '호남선'>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시 만난 것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서울의 변두리 달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봉천동 신림동 금호동 천호동 오금동 성남 부천 의정부... 당연히 꾀복쟁이 동무들도 대부분 공돌이가 되어 무슨 '**공장'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글 깨나 배웠다는 중고등학교 친구나 선배들도 다들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뺨 없고 가진 거 없어 맨손, 맨발, 맨몸으로 킁킁대며 '맨땅에 헤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시공부나 대기업입사 시험에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그것 밖에 다른 뽀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들이 그 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그 앞날은 보나마나 불 보듯 뻔했습니다. 아무리 사시 행시 외시를 줄줄이 합격해 소위 출세를 해본들 권력의 주변부를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시통과해도 기껏 올라가 봤자 중앙부처 국장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조차 바늘구멍이었을 것입니다. 외시도 잘해봤자 어디 동남아시아 대사정도나 할까요? 물론 사시가 상대적으로 낫기는 했지만, 검사는 애시 당초 고위직은 어렵었고, 판사는 지방법원장 같은 것은 몰라도 대법관 같은 고위직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좀 달랐을까요? 아마도 더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전라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1차 서류심사에서 무자비하게 싹부터 잘라버렸으니까요. 간혹 가물에 콩 나듯 자그마한 호남기업 같은 데서 뽑아주긴 했지만, 솔직히 그런 곳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전라도사람의 인생은 달의 행로만큼이나 뻔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주변부를 맴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공장노동자

로 살았고, 글 깨나 배웠다는 사람들도 권력이나 자본의 주변에서 ‘구색 맞추기’ 정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전라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전라도 땅을 생각합니다. 조금조금 썰물에 드러난 서해갯벌 같은, 자식들 키우느라 시들어진, 늙은 어머니의 거무튀튀한 젖꼭지 같은, 뒤란 바람벽의 말라비틀어진 무청시래기 같은, 시어 꼬드려져 하얀 더께가 내려앉은 대숲땅속 향아리의 묵은지 같은….

누가 “전라도”라는 말만 해도 그만 가슴이 찢해집니다. 콧잔등이 시큰 해집니다. 어찌다가 나는 전라도 땅의 기운과 살을 먹고 자라게 됐을까요. 그 살가운 리듬과 어깨춤의 신바람을 누가 내 몸에 심어줬을까요. 해마다 봄이 오면, 서해바다를 건너온 대륙의 누런 먼지가 들판에 자욱하게 가라앉고, 그것이 수만 년 동안 쌓여 붉은 황토가 되고, 그 황토 위에서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대대로 곡식을 일구어 가족들을 먹여 살린 삶터. 왜 전라도 땅은 가도 가도 황톳길이요, 왜 밭길 닿는 곳마다 가슴이 미어지게 슬퍼질까요.

도대체 ‘奎羅道’라는 말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당시 호남의 큰 고을이었던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첫 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1314년에 팔도 중에서 두 번째로 생긴 이웃 경상도(1314년)보다 무려 296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그 한참 뒤에 탄생한 충청도(1356년), 강원도(1395년), 평안도(1413년), 황해도(1417년), 함경도(1509년)야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라도가 조선팔도 가운데 맨 먼저 생겨났을까요. 전라도사람들이 다른 지방보다 유난히 예뻐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려 8번째 임금 현종(992~1031 : 재위 1009~1031)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사생아(私生兒)출신 국왕입니다.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임금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고려태조 왕건의 13번째 아들 왕욱(?~996)이고, 어머니는 5대왕 경종(955~981)의 미망인 헌정왕후(왕건 3세)입니다. 경종은 왕건의 넷째 아들이자 4대왕인 광종(925~975·왕소)의 맏아들입니다. 물론 왕욱과 광종은 태조 왕건의 똑같은 아들이지만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종은 현종에게 사촌형 겸 이모부가 되고, 현종의 생모 헌정왕후는 현종에게 어머니이자 사촌누나가 되는 셈입니다. 한 마디로 ‘콩가루 집안에 개 족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려 태조 왕건의 혼인정책과 고려왕실의 폐쇄적인 근친혼 정책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태조 왕건은 부인을 29명이나 뒀으며, 이들과 자식을 34명 낳았고, 이 중 아들이 25명이나 됩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숨 막히는 암투가 벌어졌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종은 죽을 고비를 술하게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임금 자리에 올랐지만, 오래지않아 또 다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즉위 채 1년도 안 되는 1010년, 2차 거란침입에 이어, 1018년엔 3차 거란침입이 닥쳐왔습니다. 1011년엔 달랑 수행원 50여명만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명색이 임금이지 관리나 백성이나 ‘왕을 헌신짝처럼’ 여겼습니다. 피난 첫날 경기 연천에선 군졸과 역졸들이 활을 쏘며 현종일행을 공격했고, 현종이 스님생활을 했던 경기도 양주에선 향리가 현종을 우습게보며 위협했습니다. ‘거렁뱅이 중질했던 놈이

무슨 왕이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머물렀던 전주에선 절도사 조용겸이 평상복으로 현종을 맞이하며 거드름을 피웠고, 부하들로 하여금 임금을 놀려먹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현종은 그런 식으로 나주에 이르러 10여 일 동안 마음 편히 머물게 됩니다. 나주는 고려왕실의 외가이므로 그곳에서 비로소 발을 뺄고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1018년 현종은 왜 전라도를 만들었을까요. 왜 전주와 나주를 묶어 행정조직을 정비 했을까요. 그 이듬해인 1019년에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으로 거란족을 크게 물리쳤으니, 그 당시만 해도 거란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려의 행정조직을 일사불란한 전시체제로 바꿀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전라도는 곡창지대라 군량을 확보하려면 행정체계가 물 흐르듯이 원활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고려재정의 3분1을 지탱했던 것이 바로 곡창지대 전라도의 생산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 거란침입 당시 현종 자신이 겪었던 남쪽으로의 피난체험이 큰 참고가 됐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방 호족세력이 날뛰도록 놔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 같은 경우 후백제의 정서와 견훤 세력이 그 때까지도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한시바빠 지방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전쟁수행과 왕권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1018년 현종의 행정개편은 큰 성공을 거둡니다. 본격적으로 왕권을 휘어잡고 고려 태평성대의 주춧돌을 놓습니다. 기나긴 거란과의 전쟁을 극복했고, 그 와중에 지방 호족세력들을 점점 장악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종은 현명한 군주임에 틀림없습니다. 기껏 스물아홉에 자신의 개인적인 역경과 고난 그리고 국가적인 절대 절명의 위기를 거뜬히 극복해 냈습니다. 현종의 인생은 '그 시작은 비록 미미했으나 그 끝은 창대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정작 다른 데에 있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거란과의 전쟁 승리 뒤부터 왕건 이후 잠잠했던 '훈요십조'가 다시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왕건의 훈요십조 중 제8훈 '車嶺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竝趨背逆(차령이남 공주강외 산형지세 병추배역)...'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강 이남의 산형지세는 배역한 형세이니, 인심도 그러할 것이므로 그쪽사람을 중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과거 후백제의 수도였고, 당시 공공연하게 반란의 기운이 짙었던 전주(全州)의 호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랬을 것입니다. 그 때만 해도 후백제가 멸망한지 80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아직 3대가 채 지나지 않은 때이니, 전주 명문세력들의 손자세대들은 할아버지로부터 후백제 견훤의 무용담과 왕건과의 치열했던 싸움의 전설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황상 전주호족들은 고려왕실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고려정권을 우습게 알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현종은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가 내세웠던 명분이 바로 태조 왕건의 '훈요10조'였던 것입니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민정당을 비롯한 여당 정치권의 호남배제론과 비슷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견훤 세력이 강했던 완산지역을 고려 사회에서 왕따 시키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같은 차령 이남이지만 현종의 지역기반인 나주(羅州)를 호의적으로 본 것과는 좋은 비교가 됩니다. 2대왕 혜종의 업적을 자주 칭송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종은 왕건의 두 번째 부인 나주 오씨의 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라도 사람들의 가슴에 창이 되고 칼이 되어 남았습니다. 바늘을 한 움큼

삼킨 것만큼이나 깊은 생채기가 된 것입니다.

노인은 샅으로
 영산강을 퍼 올린다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머지않아 그대 눈물의 뿌리가 보일 때까지
 노인은 다만
 성난 사람을 혼자서 퍼올린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인은 끝끝내
 영산강을 퍼올린다 가슴에다
 불은 짙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논바닥은 붉게 타는데
 바보같이 바보같이 노인은 바보같이
 -<이성부 '전라도· 7'>

정말 전라도 땅은 풍수적으로 반역의 땅인가?

왜 실학자 성호 이익(1681~1763)은 “전라도의 물길은 散髮四下(산발사하)와 같이 되어 국면을 이루지 못한다. 재덕 있는 사람의 출현이 드물고 人風(인풍)이 獲狹(획교)하여 사대부가 귀의할 수 없는 땅이며, 차령이북에 대하여 逆勢(역세)의 모양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땅이다”라고 했을까요. 풀어 말하면 ‘전라도의 강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지를 않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이 교활하고 인심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남의 덕유산에서 발원한 금강은 활을 거꾸로 쏜 ‘公(공)’자 모양으로 흘러 서울과 개성의 양 도읍에 逆心(역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반역의 땅’이라고 까지 꼭 집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도의 강줄기가 사방으로 제각각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강은 북으로 한양을 향해 활을 쏘는 듯 솟구쳐 흐르고, 만경강 동진강은 서해로 빠져나가고, 영산강은 목포 어름의 서남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또한 탐진강 섬진강은 남해로 길을 잡습니다. 경상도의 강줄기가 거의 대부분 낙동강에 합류하여 다대포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것과는 뚜렷한 비교가 됩니다. 이를 논거로 성호 이익은 ‘경상도의 풍습과 기질은 굳게 뭉치고 흐트러짐이 없어 명현을 배출하니, 나라 안에서 으뜸고장’이라고 말합니다.

풍습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도의 물줄기와 비슷하게 흐르는 프랑스는 어떤가요. 프랑스는 국토 한 가운데에 우뚝 솟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느강은 영국해협으로, 드와르강은 비스케이만으로, 소느강과 로느강은 지중해로 빠지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전라도와 빼다 박은 지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양학자들의 해석은 실학자 이익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세와 기후가 극단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의 기질은 중용적이며, 하천이 삼면의 바다로 흘러드니 사람들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다. 또한 성질이 은근하며 낙천적이고, 사교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풍토로 인하여 언어표현이나 사고가 논리적이고 명석하다.”

그렇습니다. 사물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집니다. 성호 이익의 해석은 전라도 사람으로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전라도는 이 땅의 역사에서 ‘野地(야지)’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마디로 ‘들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땅, 벌판이 가장 많은 땅입니다. 저녁 해가 눈 속으로 화려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징계밍게 호남평야입니다. 역사에서도 늘 ‘변방의 우짚는 새’로서, 때로는 끼이끼이 울며, 징하고 모질게 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들불처럼 타오르며, 석양을 벌겁게 물들이고 사라져갔습니다. 팽과리 징 장구 북의 사물놀이처럼 시끄러운 듯 황홀하고, 무질서 한 듯 어우러지는, 그 ‘찬란한 슬픔’ 속에서 나름대로 옹골지고 신명나게 살았습니다.

지리산 아래 구례나 담양에 오시거든
대숲에 귀를 대봐요
장성 오는 길목 갈재고개 넘어오시다가
시뉘대밭 보시거든
얼른 귀를 대봐요
대숲에선 풍금소리가 나요
애간장을 끓이는 단소 소리가 나요
바람이 없는 날에도
소리소리 지르고 싶어 안달을 하는
대나무들의 몸짓을 볼거예요
전라도에선 어디서곤
대나무를 만져 보세요
헉헉거리며 속으로만 소리를 토해내다
울컥울컥 목에 걸려 매듭이 되어버린
전라도 대나무를 볼거예요.

-<김상현 '전라도 대나무'>

전주와 나주선비들의 허위의식

전주사람들은 은근하고 넉넉합니다. 영락없는 전주음식입니다. 짜거나 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돌아서면 두고두고 혀끝에 ‘달짝 앵기는’ 그런 맛입니다. 말씨도 점잖습니다.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남도의 광주·전남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랑께’란 말도 전주로 넘어오면 ‘그러영어~’나 ‘궁게’로 순하게 걸러집니다.

어찌다가 전주어르신들 모인 곳에 가서 가만히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판소리가락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칩니다. 저물녘 서해바다 주름물결처럼 진양조 가락으로 끊일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지며, 싸목싸목 쫘득쫘득 유장하고, 싸르락싸르락 새벽잠결에 어머니 쌀 이는 소리처럼 아련하고 뭉게뭉게 피어나는 이야기꽃자리. 시방 네가 앉아있는 이곳이 꽃자리니라. 한순간 온 세상에 백양목같이 하얀 이팝나무 꽃송어리가 ‘투옥~ 투’ 다발로 피어오릅니다.

그 넓고 아득한 징계멍게 외야밋들, 그 한복판에 갈 짓자 양반걸음으로 유유하게 흐르는 만경강·동진강을 어찌 그리 꼭 닮았는지요. 세상이야 혁명을 하든 말든,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든 말든, 우렁우렁 재미난 이야기들 곰살맛게 풀어가며 얼싸덜싸 그저 끊임없이 아래로 아래로 스며듭니다. 강물은 밤새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 많은지 눈부신 달빛에 윤슬로 반짝이며 수런수런 두런두런 서해바다로 흘러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는 조선의 스물일곱 임금들과 땀레야 땀 수가 없습니다. 조선왕조의 본향이 바로 전주이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을 끝까지 지킨 것도 다부지고 아금박시런 전주선비들입니다. 태조 이성계(1335~1408)의 얼굴을 모신 한옥마을의 경기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주사람들은 해마다 그 어진을 각듯이 받들어 모셔 제사까지 성대히 지냅니다.

전주는 이성계를 빼면 뭔가 허전합니다. 한마디로 전주는 ‘조선태조 이성계의 고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왕의 도시’인 것입니다. 좋은 싫든 전주일대에는 곳곳에 그의 흔적이 몽텅몽텅 남아있습니다.

서울에서 경복궁이 중심이라면, 전주에선 경기전-조경묘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서울의 주산은 북악산이고 그 자락에 경복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도 주산 승암산(중바위 306m)아래 경기전이 있습니다(견지산이 주산이라는 설도 있음). 경복궁 왼쪽엔 낙산, 오른쪽엔 인왕산, 앞쪽에 남산이 있듯이, 전주에도 경기전 왼쪽엔 완산칠봉(163m), 오른쪽엔 기린봉(260m), 앞쪽엔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전주천은 서울의 한강역할을 합니다.

이성계 이후 조선임금들은 전주에 대해 신경은 쓰되 과대한 관심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상지인데도 그 누구도 직접 발걸음을 한 임금이 없습니다. 물론 어명을 통해 경기전과 조경묘의 관리를 살뜰하게 살핀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전주를 챙기거나 우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반역의 기운이 있다’는 이유로 전라도 인물 쓰기를 노골적으로 꺼려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양반네들은 이성계의 얼굴을 모신 경기전과 그 시조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를 각듯이 대했습니다. 정작 한양에선 알아주지도 않는데 전주양반네들은 ‘전주는 이씨왕조의 본가’라며 으스스했습니다. 심지어 경기전 옆에 있었던 향교조차 ‘서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성소(聖所)에 누가 된다’며 멀찌감치 옮겨버렸습니다. 공자님의 위패를 모신 향교의 대성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주선비들의 허위의식입니다. 중앙권력의 벼슬에서 소외받았던 그네들의 무의식적 열등의식의 발로인 것입니다.

나주양반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주가 ‘왕의 도시’라면 나주는 ‘선비의 고을’입니다.

전주에선 조선 태조 이성계의 御眞(어진·초상화)을 모신 경기전(慶基殿)이 으뜸이라면, 나주에선 단연 나라에서 세운 성리학 학당이자,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향교(鄕校)가 최고였습니다. 전주향교가 태조 이성계의 위력에 밀려 딴 곳으로 옮겨졌지만, 나주향교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그곳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자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은 전주향교의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웅장합니다.

전주향교는 총 99칸에 이를 정도로 그 전체규모는 나주향교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옆에서 볼 때 '人'자 모양)으로 소박합니다. 나주향교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옆에서 볼 때 '八'자 모양)으로 서울 성균관 대성전과 그 규모가 맞먹습니다. 큰 규모로 이름난 강릉향교의 대성전(정면 5칸 측면 3칸 맞배지붕)보다 더 크고 화려합니다. 오죽하면 중국목수가 와서 지었다는 설까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주향교 대성전 벽체에 발랐던 흙도 공자님 고향인 중국 산둥 곡부에서 가져왔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나주는 양반과 선비들의 고을인 것입니다.

나주양반들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드높았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전주 전라감영의 지휘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주선비들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주를 '작은 한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기야 나주읍성은 그 지세(地勢)가 한양과 빼다 박았습니다. 한양도성의 '북한산-남산-한강-청계천-경복궁' 구조가 나주에선 방향도 거의 똑같이 '금성산-남산-영산강-나주천-금성관'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평생 한양구경을 할 수 없었던 전라도 백성들은 "나주읍성에 갔다 오면 한양에 갔다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겠습니까.

흔히 나주는 '천년 목사고을'로 불립니다. 983년 고려 성종 때 전국에 12목(牧)을 두었는데 그 때 나주가 '목'에 포함된 것입니다. 당시 12목은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해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황주'였습니다. 35년 뒤인 1018년, 현종 때는 '공주, 승주, 양주, 해주'가 빠지고 8목으로 축소되었지만, 그 때도 '전주, 나주'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주(羅州)'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원래 백제시대 나주는 '發羅(발라)'였고, 통일신라 때 '錦山(금산), 錦城(금성)'으로 불렸습니다. '발라'는 우리말의 '비단'을 뜻하는 '바라'의 한자표기입니다. 통일신라 때 나주를 비단 '錦(금)' 자가 들어간 '錦山(금산), 錦城(금성)'으로 불렀던 것도 다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 왜 나주가 '비단고을'일까요. 비단이 많이 나서 그럴까요? 추측컨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發羅(발라)'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자 발라엔 '벌어진 고을'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아래가 툭 터진 물 자루 모양의 나주 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물 자루 같은 영산강(138.7km)'이 드넓은 나주들판을 적시고, 그 들판에 수많은 마을이 하늘의 별처럼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모습이 '비단 이불 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해마다 모내기 전, 김제만경 그 너른 들판에, '끝없이 솟불처럼 피어나는 자운영꽃밭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주 들판에서
정말 소가 웃더라니까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풀을 뜯는
 소의 발밑에서
 마침 꽃이 핀 거야
 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피는 꽃이 소를 살짝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소가 꽃 위에 잠깐 뜬 셈이지
 하마터면,
 소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 한 것이지
 -<윤희상 '소를 웃긴 꽃'>

나주는 누가 뭐래도 고려태조 왕건의 처가로 이름난 고을입니다. 전주가 '조선태조 이성계의 고을'이라면, 나주는 '고려태조 왕건의 고을'인 것입니다. 왕건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머물면서 후백제 견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주의 강력한 호족인 오다련의 딸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당시 나주호족들은 완도의 장보고(785~846) 잔여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해상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서해는 물론 남해 일부까지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으로선 천군만마와 같은 후원세력을 얻은 셈입니다. 두 어깨에 날개를 단 것입니다. 왕건은 이곳을 평정한 뒤 이름을 '나주'로 바꿉니다. '發羅'에서 '發'을 떼고 '羅'자에 큰 고을 '州'자를 붙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호남에서 전주(全州)와 맞먹는 '큰 고을'이 된 것입니다.

왕건이 오다련의 딸과 처음 만났다는 곳이 지금도 나주시청 부근에 남아있는 웅달샘 완사천(浣紗泉)입니다. '완사'란 빨래를 말합니다. 911년 목이 마른 서른넷의 왕건(877~943)이 샘가 빨래터의 열일곱 처녀에게 물을 한잔 달라고 그러합니다. 그러자 오씨 딸 버들아씨(장화왕후)는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다소곳이 건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그 이듬해(912년) 고려 2대왕 혜종을 낳았습니다. 혜종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돛자리 무늬가 있어서 '돛자리 임금'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나주 오씨들은 조선 세종 때까지도 '혜종의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기록(세종실록)이 있을 정도로, 고려시대 개경왕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 삼별초군이 나주를 거칠게 공격해 왔을 때도, 금성산성에 들어가 7일 동안이나 저항하며 끝내 물리쳤습니다.

1519년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죽은 기묘사화(중종 14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바람이 몰아치는 그 시절,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나주 유생 11명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광조를 죽이면 안 된다'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대궐 앞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피울음으로 외쳤으나 그 대답은 무차별한 몽둥이찜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미련 없이 한양

에서 나주까지 맨발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산강변(왕곡면 송죽리)에 錦社亭(금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이곳에서 시를 짓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금사정 앞의 동백나무 한그루(천연기념물 515호)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다짐하고자 심은 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주유림과 양반들의 자존심과 강직한 옹고집은 유별났습니다. 한 마디로 나주향교와 고려태조 왕건의 처가라는 두 가지가 나주양반네들 자존심의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주선비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나주양반들의 또 다른 열등감의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송정리. 영산강. 구진포
우리는 그 지명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은 그리움으로 철철 넘친다.

타관 하늘 아래서도
영산강 주점만 보면
금방 누님집 가듯 들어서면 목로판
주모의 사투리 안주 삼아
막걸리잔 위에서도 고향은 철철 넘친다.

우리들 한 시절 사람도 못 되어
전라도 놈들로 밀리며
설움을 안주 삼아 퍼마셨던 밤
빈병 줄 세워 쌓아 놓고 밤이 새도록
영산강이 마르도록 우리들은
한 많은 전라도를 마시고 또 마셨다.

이 밤에 사랑아, 너는 저만큼
비켜 있거라, 제발 시빌랑 하지 말고
내 큰 사발에 영산강을 가득가득 채워다오.

갈매기도 불러놓고 땅강아지도 똥개도 모셔놓고
고향을 마시고 영산강을 마시고
바리바리 푸대접을 줄줄이 마시고
이 밤에 나 그대에게 고백하련다.

그대는 나의 영산강 목마를 때
쭉-들이키는 서러운 영산강
3등열차 긴 밤 길게 달려와

입석표 새우잠 깨어났던 송정리 역전에서
 그 빈창자 속에 들이붓던 탁배기 한 잔
 서울서 뺨 맞고 장성갈재에서 눈 흘기던 새벽
 아프게 서럽게 스미던 나의 영산강.

-<문병란 '나의 영산강'>

미륵의 나라 후천개벽의 땅!

옛날 전라도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전주와 나주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큰 고을에만 사람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너른 김제만경평야와 나주평야 그리고 수많은 섬들에도 이름 없는 백성들이 서로 부대끼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대부분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생활이었고 그것마저 세금이다 뭐다해서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무지렁이 인생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뚜렷한 생각과 체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전주나 나주의 선비나 양반들보다 훨씬 더 신명나고 인간답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나 나주의 지배층들이 완고한 유교시스템의 네모난 상자 곁 속에서 갇혀 살았다면, 전라도 민초들은 그 줄기찬 생명력으로 역동적이고 활달하게 천지 우주와 감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미륵사상이 있습니다. 전주 모악산과 화순 운주사 일대가 그 대표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륵부처는 메시아입니다. 석가모니가 죽은 뒤 56억7천만년 뒤에 올 미래부처입니다. 흔히 미륵불은 현재 도솔천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도솔천에서 살고 있는 미륵이 이 세상에 내려오면 용화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화세계는 곧 인간의 이상향인 샹그리라인 것입니다.

미륵사상은 삼국시대에 번지기 시작했고, 통일신라 말기부터 활짝 그 꽃을 피웠습니다. 신라사람들이나 백제 사람들이나 모두 미륵부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즉 신라인들은 '미륵상생', 백제인들은 '미륵하생'을 바랐던 것입니다.

신라인들은 죽은 뒤 미륵불이 살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들은 삼국통일전쟁에서 승전국인 지라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5만여 가구의 경주 사람들은 집집마다 숯불로 밥을 지어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삼국통일을 이뤄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습니다. 현실의 물질적인 삶에 그다지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것 보다는 죽은 뒤에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관심이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에 따라 자신이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미륵이 있는 도솔천은 기독교의 천국이나 같습니다.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사후에 천당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백제인들은 미륵이 이 세상에 내려와 그들을 구제해주길 바랐습니다. 하루빨리 미륵부처가

이 땅에 내려와 '귀족과 평민, 남성과 여성,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이뤄지길 꿈꿨습니다. '모두가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바랐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다는 반증입니다. 화순 운주사 같은 경우 '1000개의 부처와 1000개의 탑을 만들면 미륵부처님이 내려오신다'는 전설을 믿고, 그렇게 탑과 불상을 만들었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와불(臥佛)이 벌떡 일어나는 날, 미륵세상이 이뤄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귀를 씻고 씻어야
저 강물 같은 숨결을
얌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의 거울을 닦고 닦아야
저 연꽃 같은 미소를
비출 수 있을까
.....

토끼는 토끼대로
들쥐는 들쥐대로 사는 용화세계(龍華世界)
견훤이 꿈꾸었던 평화세상을
언젠가 꼭 이루고야 말
미래불(未來佛)이시여
-<이가림의 '미륵이여, 미래불이여'에서>

전주모악산(793m) 자락은 온유합니다. 봉우리는 암소잔등처럼 아늑합니다. 모악산은 동쪽 전주와 서쪽김제 사이에 가부좌를 틀고 있습니다.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은 연꽃의 한가운데 꽃술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는 바로 미륵보살의 나라인 것입니다. 미륵은 한자로 가득찰 미(彌), 짚 락(勒)을 씁니다. 즉 하늘과 땅에 도(道)가 가득 차도록 전 우주생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바로 그런 미륵의 뜻이 이루어진 유토피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미륵보살이 살고 있는 도솔천인 셈입니다.

미륵전은 겉에서 보면 팔작지붕의 3층 건물이지만, 안에서 보면 통 층입니다. 각 층에는 미륵세상을 뜻하는 각기 다른 명칭의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1층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 미륵전(彌勒殿)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륵전 안 미륵3존 불상 중 가운데 미륵불은 높이가 무려 39척(11.82m)이나 됩니다.

완산칠봉 바라볼 때마다
전주성 밀고 들어가던
농군(農軍)들의 함성들이
땅을 울리며
가슴 한복판으로

달려왔었는데
 금년 세모의 완산칠봉에는
 ‘전주화약(全州和約)’ 믿고
 뿔뿔이 돌아가는
 농꾼들의 여물지 못한
 뒷모습 보입니다.
 곰나루, 우금치의
 처절한 패배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해는 내일 또다시 떠오른다는
 믿음직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봅니다.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계룡산자락도 신흥종교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신선이나 단군 그리고 정도령 설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해 모악산 앞자락 반경 30리(12km)엔 미륵신앙공동체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들은 미륵 품안에서 살면 큰 난리도 피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백운동마을, 동곡마을, 용화동마을, 청도리... 하나같이 미륵의 나라, 미륵의 세상을 꿈꿉니다. 용화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미륵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3번이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악산은 바로 미륵의 나라입니다. 후천개벽의 땅입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바로 미륵신앙의 성지인 것입니다. 주위의 신흥종교들의 중심도 대부분 금산사미륵전입니다. 하지만 불교조계종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스님들은 미륵교도들을 미신이나 사교신자로 보는 반면, 미륵교도들은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창건할 때 미륵을 모셨으니, 금산사스님들도 당연히 그 뜻에 따라 미륵을 모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악산 배꼽 바로 밑엔 ‘오리알 터’로 불리는 금평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곳 사람들은 ‘오리알 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올(來) 터’라는 뜻입니다. ‘올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리터→오리알터’가 된 것입니다.

올터는 ‘천하우주의 모든 기운이 이 곳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메시아가 오는 터란 것입니다. 불교에서라면 미륵불이 오고, 증산교에서라면 상제(上帝) 강증산이 오는 곳입니다. 한 마디로 이곳은 모악산 주변의 신흥종교인들에게 ‘우주의 자궁’인 셈입니다. 모든 생명의 고향인 것입니다.

오리알터와 제비산 부근이 모악산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으뜸인 곳입니다. 타원형의 오리알터 위쪽 정수리에 솟은 산이 바로 제비산(帝妃山)입니다. ‘황제의 아내 산’이란 뜻입니다. 조선시대 혁명가 정여립(1546~1589)이 서른아홉 때 한양의 벼슬을 버리고 제비산 월명암 아래에 터를 잡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의 집터와 그가 천일동안 기도를 했다는 치마바위가 남아있습니다. 월명암은 여태까지 수백여 명의 고시합격생을 배출한 암자로도 유명합니다.

강증산(1871~1909)은 정여립 집터 바로 옆 구릿골(동곡마을)에 약방(광제국·廣濟局)을 차려놓고 구한말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증산(甞山)의 '증(甞)'은 '시루'를 뜻합니다. 증산은 곧 시루봉을 말합니다. 음식을 삶으면 국물이 우러나 맛이 달라지지만, 시루에 찌면 제 맛을 잃지 않습니다.

강증산은 여성과 백정, 무당이 존경받고 서자와 상민이 무시당하지 않는 후천개벽의 세상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른여덟에 눈을 감았지만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동네사람들과 막걸리도 곧잘 마시고, 신이 나면 얼씨구절씨구 어깨춤도 들썩였습니다. 꿩과리나 장구는 물론 굶도 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광대요 무당이며 천지농사꾼이다. 광대와 무당이 바로 가장 큰 후천개벽의 전위다”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도 오리알터 아래 감곡 황새마을에서 감수성 많은 유년시절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원평이나 금구장날엔 친구들과 함께 장바닥을 돌며 세상인심을 익혔습니다. 훗날 그의 오른팔이 됐던 동학의 금구접주 김덕명과 태인접주 손화중도 바로 그 시절에 사귀었던 동무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곳에선 '눈이 샨별같이 빛나는 차돌 같은 소년 녹두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백운동마을은 강증산의 제자 안내성(安乃成 1867~1949)이 1929년에 세운 증산대도교 교인촌입니다. 안내성의 아들 안문환과 제자 유영주의 후손들이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한때 수백호가 살았지만 지금은 20여 가구가 뽕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즘도 강증산의 생일 날 등엔 위쪽 당산나무 아래에 모여 치성을 드립니다. 당연히 증산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을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백운동길은 도통사(道通寺)로 이어집니다. 도통사도 증산교 계열입니다. 그 아래엔 용화교본부가 숨어있습니다. 도통은 증산교에서 깨달음을 말합니다.

오리알 터 주변엔 증산계열 종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산의 유일한 혈육인 강순임이 세운 증산법종교, 제자 안내성의 증산대도회(백운동 교인촌), 제자 이상호·이정립 형제의 증산교본부, 제자 김형렬의 미륵불교, 제자 서백일의 용화교본부, 증산 외손자가 세운 전각 청도대향원, 증산의 둘째부인 고수부(태을교)를 모신 집, 도통사... 20여개 종파가 남아있지만 대부분 노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6.25전쟁 후 50여 종파에 수천여 신도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증산의 시신은 본부인 정씨가 제자 차경석(보천교)에게 '증산유골반환소송' 끝에 승소(동아일보 1929.3.27일자 보도), 현재 딸이 세운 증산법종교 경내에 묻혀있습니다. 증산의 구릿골 약방은 최근까지도 소박한 초가집이었으나, 증산교의 한 종파인 대순진리회가 인수해 거대한 기와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당가 채송화 봉숭아 맨드라미 꽃밭도 사라지고 뒤란의 텃밭도 없어졌습니다.

“모악산에는 어머니의 가슴에 머리 박고 젓 먹는 형상의 '엄바위'가 있어 이 산을 '엄뫼'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엄바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젓줄이 되어 김제만경 넓은 벌을 적셔준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모악이며 엄뫼입니다.

이 산은 미륵신앙의 종조(宗祖) 진표율사가 입산하고 입적한 곳이기도 하며, 동학농민전쟁

의 패배로 무참하게 좌절된 농민들의 황폐한 정신에 ‘후천개벽’의 사상을 심어준 증산교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산의 크기에 비해 넘치는 역사성을 안고 있습니다.

금산사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암자, 가마솔 위에 세운 미륵상, 20여의 증산교당, 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산 너머 김제 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물론 그 쪽이 산남(山南)의 향양처(向陽處)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김제평야 소산(所産)의 농산물 잉여에 그 물질적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륵의 현신(現身)은 물론이고, 천기(天氣)와 비기(秘記), 정토(淨土)와 용화(龍華)와 개벽사상은 넓은 대지에 허리 구부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예지의 창조물이면서 동시에 그들 위에 군림해 온 상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전주에 모악산이 있다면, 나주부근엔 운주사가 있습니다. 운주사(雲住寺)는 ‘구름이 머무는 절’이란 뜻입니다. ‘배를 띄우는 절’이란 뜻의 ‘運舟寺(운주사)’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늘을 흘러 다니는 구름이나, 물 위를 떠다니는 배나 ‘도찐개찐’ 그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골짜기에 그렇게 많은 불상과 탑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도선선사(827~898)가 이 땅의 기운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주사골짜기에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세웠다는 전설이 있지만, 실제 이 골짜기의 불상과 탑들은 12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선선사가 죽은 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저자거리 중생들의 애타는 염원이 도선선사를 끌어들이어 그러한 전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운주사골짜기는 밑바닥이 터진 ‘∩’꼴입니다. 양쪽 야트막한 산등성이(약 100m)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있습니다. 두 산등성이 안쪽은 아늑한 우묵 배미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북쪽 끝은 이마가 푹 튀어나온 바위절벽으로 막혀있습니다. 그 절벽 벼랑엔 마애불이 남쪽을 향해 앉아있습니다.

나를 부처라고 부르지 말라
천불천탑(千佛千塔)
그 하나가 부족하여 날 새버린
개벽의 꿈이 아쉽다고
말하지 말라

마지막 하나의 부처가
내 배꼽 위에 앉아있는
너 자신임을 알기까지는
화순 들녘의 땀 흘리는 중생들이
바로 내 자식들임을 알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미륵세상을 노래하지 말라
내 몸이 부서져 닳고 닳아도

여전히 한스러운 세상
나의 기다림은 멀다

나를 누워있는 부처라고 부르지 말라
나의 발끝에서 더 이상 절하지도 말라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일어서지 않을 때
나는 돌이 되어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
-<이병창의 '화순 운주사'에서>

골짜기 안에는 못난이 돌부처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이에 비하면 경주남산의 돌부처들이 훨씬 잘 생겼습니다. 운주사돌부처들은 보리밥 알갱이처럼 몸통이나 얼굴선이 길쭉하고 가름합니다. 영락없이 모델리아니(1884~1920) 초상화의 여인들 같습니다. 울퉁불퉁 투박합니다. 세련된 것은 몇몇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코끝이 닳거나 깨져 뭉툭한 돌부처는 그나마 잘생긴 편에 듭니다.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돌부처가 있는가 하면, 목이 잘려 머리만 있는 돌부처도 있습니다. 머리 없는 몸통돌부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운주사골짜기는 커다란 나룻배이고, 못난이돌부처들은 그 나룻배의 노 젓는 사공들인 셈입니다. 물론 우뚝 솟은 탑들은 물길을 잡는 노가 되겠지요.

경주남산은 남북 8km, 동서 4km의 화강암 산입니다. 남산 40여 골짜기에 절터 122 곳, 돌부처 57개, 돌탑 64개 등 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야외 신라조각박물관'입니다. 골짜기마다 불상이나 탑들의 조성연대가 달라 신라불상의 흐름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운주사의 돌부처와 돌탑들은 한 골짜기 안에 오종종 모여 있습니다. 돌부처 100여개, 돌탑 21개가 배시시 웃고 있습니다. 골짜기도 넓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5~2km나 될까요. 경주남산 부처와 탑들을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일주일엔 둘러봐야 합니다. 하지만 운주사 부처와 탑들은 길어야 한나절이면 볼 수 있습니다.

경주남산의 돌부처들은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이 모두 새겨져있습니다(마애불 제외). '돌의 사방을 모두 깎아' 만든 환조(丸彫·Carving in the round)작품입니다. 하지만 운주사부처들은 한쪽면만 '돋을새김'한 부조(浮彫·Relief)입니다. 경주남산의 화강암은 돌이 희고 곁에 작은 구멍이 많아 조각하기에 좋습니다. 토함산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도 이곳 돌을 가져다 다듬었을 정도이니깐요. 하지만 운주사 돌은 응회암입니다. 응회암은 화산재가 켜켜로 쌓여 굳어진 돌을 말합니다. 시루떡처럼 층층으로 곁이 있어 정교하게 깎기가 어렵습니다. 앞모습만 '돋을새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나 운주사에 가서 와불에게로 가서
벌떡 일어나시라고 할거야
한 세상 내놓으시라고 할거야
와불이 누우면서 발을 길게 뻗으면서
저만큼 밀쳐낸 한 세상 내놓으시라고 할거야

산 내놓으시라고 할거야
 아마도 잠버릇 사납게 무심코 내쳤을지도 모를
 산 두어 개 내놓으시라고 할거야
 -<신현정의 '와불(臥佛)'에서>

운주사 서쪽산마루에 누워있는 와불은 운주사의 우두머리 돌부처입니다. 그 와불이 별떡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날, 바로 후천개벽의 미륵세상이 오는 날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두 부처의 얼굴은 계란처럼 가름합니다. 귀는 길고 넓적합니다. 입술은 두툼하고 눈은 반달형입니다. 운주사돌부처로선 보기 드물게 귀퉁이 나는 아주 잘 생긴 부처입니다.

이 와불은 북극성입니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 아래 산허리에는 북두칠성(국자) 모양의 둥근 돌덩이 7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위덩이 크기가 북두칠성 별 밝기와 비례합니다. 배치간격이나 각도도 북두칠성과 유사합니다. 그 7개의 칠성판이 북극성인 와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와불은 자세히 보면 누워있지 않습니다. 바닥에 새겨서 그렇지 결코 '누워있는 돌부처'가 아닙니다. 돌은 누워있으나 두 부처는 앉거나 서있습니다. 서쪽 산등성이 꼭대기에서 하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1000년 동안 '하늘과 한판 기(氣)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오른다리를 들어 엮은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있고, 다른 한 분은 꼳꼳이 서있습니다. 하늘에선 구름이 오가고, 눈이 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찬 서리가 내리고 칼바람이 불니다. 햇살이 몸을 간질입니다. 그래도 두 부처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두툼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오로지 묵언정진 할뿐입니다. 그 앞에선 머슴돌부처가 묵묵히 두 부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지리도 못나
 말 한마디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벗들이여 우리 새로 벗이 되자
 우리가 밟은 땅 위에서
 푸른 하늘이 되자
 구름장 걷고
 화순땅 운주사 마른 풀밭 위에서
 -<고은 '운주사'에서>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입니다. 한 절에 1~2개가 보통입니다.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 2개 탑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운주사골짜기엔 20여개의 탑이 있습니다. 절은 하나이지만 탑은 많습니다. 탑들은 돌부처와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투박합니다. 모양도 가지가지입니다. 백제탑, 신라탑, 고려탑에서 중국송나라 냄새나는 탑도 보입니다.

사각형 탑도 있고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듯한 거지 탑(동냥치 탑)도 있습니다. 초코파이나 주판알을 쌓아올린 듯한 빵떡탑(원형다층석탑), 납작 원반을 켜켜로 층층 쌓은 호떡탑(원반형다층석탑), 실 감는 실패모양의 원반형돌탑 등 가지각색입니다.

도대체 운주사 못난이 돌부처와 못난이 돌탑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고려시대 석공들이 대량으로 만들어 팔다가 남은 무너리작품들일까요. 아니면 고려 견습 석공들의 어설픈 실습작품들일까요.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요즘의 '불상 만들기 주말 체험장' 짬이라도 뒀던 것일까요.

어쨌거나 못난이돌부처들은 운주사골짜기 안에서 신나게 놉니다. 골목길 개구쟁이들처럼 온종일 떠들며 짱고 까뵙니다. 그곳은 못난이 돌부처들의 해방구인 것입니다. 무지렁이돌부처들의 후천개벽 놀이터인 것입니다. 그들은 논두렁 밭두렁에서 갈지자 춤을 춥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관광버스 막춤'을 막 춥니다. 논밭에 엎어져 나뉘굴고, 경사진 바윗돌에서 미끄럼을 탑니다. 거꾸로 처박혀 흙장난을 합니다. 그러다가 쪼글쪼글 나이든 돌부처들은 바위에 비스듬히 등을 기대어 물끄러미 해바라기를 합니다.

사실 신라왕족이나 귀족들은 불국사 분황사 황룡사 사천왕사 같은 크고 화려한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 절들은 백제 아버지나 아사달 같은 프로 석공들을 불러다가 만들었습니다. 석가탑 다보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백제왕실이나 고려왕실이라고 하나도 다를 것 없습니다.

운주사 돌부처나 경주남산 돌부처나 모두 저자거리의 민초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부처를 만들고 탑을 쌓은 뒤, 그 돌부처와 돌탑에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아마추어 석공을 사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주사 돌부처들은 하나같이 정겹고 소박합니다. 유치원어린이들이 그린 엄마아빠 얼굴 같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못나 보이는 날, 문득 운주사골짜기에 오면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집니다. 못난이 천불천탑들이 배시시 웃으며 맞아줍니다.

운주사 돌부처는 80% 이상이 서있습니다. 앉아있는 부처는 20%에도 못 미칩니다. 그것은 그 부처들이 미륵불이기 때문입니다. 도솔천의 미륵불은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라도 빨리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서 준비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뽕밭의 인간 세상에 내려가야 합니다. 살기(殺氣)가 전혀 없습니다. 눈은 하나같이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두 손을 다소곳이 모은 합장자세입니다. 그것마저 장삼사이에 감춰 은근하게 '∧'꼴로 솟은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주사에는 부처 아닌 돌이 없습니다. 미륵의 나라, 미륵보살의 땅입니다. 운주사 천불천탑은 백제 후손들이 건설한 '미륵의 땅'인 것입니다.

중심은 썩고 변방은 꽃이 핀다!!

전라도는 변방입니다. 오천년 역사에서도 늘 변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변방의 우짖는 새'

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라도사람들은 한양의 중앙권력에 별 관심 없이 곳곳하게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줄기찬 생명력이 지나온 전라도 천년(1018~2018)을 살아온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생명력이야말로 앞으로 전라도 천년(2018~3018)을 꽃피울 소중한 밑알인 것입니다.

중심은 그곳이 어디든 굳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대신 변방은 끊임없이 역동적이고 말랑말랑합니다. 중심은 반드시 썩습니다. 하지만 변방은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 호남선열차를 탑니다. 요즘도 그 열차에 오르면 평생 농사꾼으로 산 아버지들과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ㄱ’자로 굽은 어머니들이 창밖을 무심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 자식들 집에 댕기러 왔다가 돌아가는 참일 것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그 분들의 새까만 주름얼굴이 영락없이 땀국에 젖어 찌들대로 찌든 객차 실내 분위기를 닮았습니다. 그 분들의 만고풍상의 삶이 바로 호남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선은 한마디로 전라도역사의 판박이입니다.

호남선은 1914년 1월11일 일제에 의해 개통(1911년 10월 착공) 됐습니다. 대전~목포를 잇는 252.5 km의 거리. 제물포개항의 상징 경인선(1899)이나 일본과 조선을 잇는 중추등뼈 경부선(1904) 보다 한참 늦습니다. 경인선이나 경부선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데 일차적으로 필요했다면, 그 이후 호남선은 조선곡창지대의 곡물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빨대’로써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탈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본인들이 기름진 논산·호남·나주평야 뱃구레에 자리를 잡고 야금야금 호남농민들의 즈름 빨아 대더니, 1930년 대 이후엔 칙칙푹푹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 부라리며, 검은 쇠차에 쌀보리 가득가득 실어, 일본으로 마구마구 퍼 날랐습니다. 해방이후라고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호남선은 ‘가난과 이농(離農)’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라도 아버지들이 단지 삼시세끼 입에 풀칠을 위해, 야간완행열차에 식구들을 술가하고, 찢 계란 소금 짝어 먹으며, 무턱대고 서울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68년 1월 시작된 호남선복선화 공사는 2003년 12월8일에야 끝났습니다. 복선공사는 그 야말로 느릿느릿 세월아 네월아, 호남선 야간 완행열차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서대전~익산(1978), 익산~정읍(1985), 정읍~장성(1987), 장성~송정(1988), 송정~목포(2003) 식으로 35년 걸려 가까스로 이뤄졌습니다.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나 옳으나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옳으나’

어쩌다 목포행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도둑처럼 달그림자 밟으며 고향을 찾곤 했던 전라도 사내들. 어딘들 ‘정 들면 고향 아닐까’만은, 밑도 끝도 없는 서울변두리의 삶이 하도 서러워, 아버지 어머니 뒷등 앞에서 밤새 울다가, 새벽 닭 우는 소리에 그만 눈시울 흠치고, 되짚어 서울로 향했던 그 피울음.

무정하게 기적소리 슬피 울며 떠나가는 대전발 0시 오십분 완행열차. 가락국수 후루룩 얼른 한 그릇 말아먹고, 서울봉천동 산 아래 판잣집 고단한 잠에 빠진 새끼들을 위해,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피눈물의 세월. 식은 팔죽처럼 시르죽은 채, 끼이

꺼이 마루밑 뚱개처럼, 진한 속울음의 전라도 사내들.

무술년 개띠해가 밝았습니다. 마침 전라도라는 말이 생긴 지 딱 100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과거 1000년은 곧 미래 천년의 주춧돌'입니다. 변방의 힘은 용솨음치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중심에 대해 조금치도 끌리지 않고 맞서는 기개와 당당함에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눈곱만치도 열등감이나 부끄러움 따윈 없습니다.

해는 바다에서 두둥실 매끈하게 솨아오르지 않습니다. 보통 검은 구름발 아래쪽이 붉게 타오르며 솨습니다. 마치 김제만경들판에서 거대한 짚불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검은 구름짚불을 태우며 솨아오르는 해이지만, 결코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일단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말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늘 아름답습니다. 살려고 꿈틀거리는 모든 생명은 눈부십니다. 전라도가 그렇습니다. 자유! 황홀! 당당함! 그 무한한 상상력! 그 거칠 거 없는 자유분방함!

[강사 소개]

김 화 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전북 김제 출생. 전주고, 한양대를 거쳐 33년을 일간지 기자로 생활하다 2015년 정년퇴직. 그는 김제 평야에서 태어났고 전주신흥중학교와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어찌다 서울로 대학 가면서 거기에 눌러 앉아 직장 잡고 애 키우며 살게 됐다. 어느덧 많은 세월을 살아온 그가 느릿느릿 노을 속 고즈넉한 뒷골목을 걸으며 기억 속의 그리운 어머니와 밥과 하늘과 동무들을 꺼내 책갈피 사이에 펼쳐 놓은 《전주에서 놀다》. 전라도의 미래를 고민하며 전라도의 인물, 지역민들의 삶, 생각을 담아낸 책 《전라도 천년》을 썼다.

글 쓰는 놈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그는 글을 쓰며 산다.

『전라도 천년』(2018), 『꽃 밥』(2010), 『전주에서 놀다』(2009), 『책에 취해 놀다』(2007), 『박지성 휘젓고 박주영 쏜다』(2006), 『CEO 히딩크 게임의 지배』(공저·2002), 『한국은 축구다』(2002), 『문득 고개 들어 세상 보니』(1998), 『견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길 21』(2010) 등의 책을 썼다. 강호에서 칼춤을 추며 살고 싶었지만, 못난 놈들은 그저 구라만 풀어도 행복한 법. 그는 종이 위에 활자를 쏜다. 한바탕 글자와 놀다 보면 자기를 부르는 고향 산이 그리워져 그 품에 안기는 꿈을 꾀다. KBS 'TV 책을 말하다' 자문위원, 손기정기념재단 이사, '육상월드'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이란?

기록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창고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불조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교책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지난해에 등록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총 16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이며,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은 수많은 전란과 인식의 부재로 심한 훼손과 멸실을 겪으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호남지방문화연구원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호남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굴·집대성·콘텐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호남문집, 호남지방지, 호남서화, 호남누정현판·금석문, 호남고문서, 호남일기자료, 호남한글고문헌, 호남인물검색시스템 등 총 8개 부문입니다. 조사 연구의 결과물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www.memoryhonam.co.kr)와 ‘호남기록문화유산’ 어플리케이션(ios, Android)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강연자료(비매품)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 2018년 3월 13일

※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2018. 3. 13(화) ~ 3. 29(목)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강의 일정

제1강좌 3월 13일(화) 저녁7시

전라도 천년, 지역민의 삶과 사상 그리고 자연

김 화 성 작가,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전라도 천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길 21',
'길 위에서 놀다', '책에 취해 놀다'

제2강좌 3월 15일(목) 저녁7시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

문 안 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호남인의 기원과 문화원형',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서남해지역 해양문화'

제3강좌 3월 20일(화) 저녁7시

호남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

최 한 선 전남도립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면앙정이며, 시심의 고향이며', '전라도도 전라도',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 '여의도갈 배추'

제4강좌 3월 22일(목) 저녁7시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 창 권 고려대 교수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한쪽 눈의 괴짜
화가 최복', '정창권 교수의 문화콘텐츠학 강의'

제5강좌 3월 27일(화) 저녁7시

한국인의 뿌리, 족보 : 과거와 현재 미래

박 흥 갑 역사학자,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승정원 일기-기록문화의 보물', '우리 성씨와 족보
이야기', '사관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양반나라
조선나라'

제6강좌 3월 29일(목) 저녁7시

호남 서예가 열전

이 동 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퇴계 이황 서예미학 연구', '추사체의 형성과정과
성격 고찰', '한국에서의 서예전시 현황과 새로운
시도', '禪筆의 성격에 대한 시론'

■ 문 의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062-234-2727

■ 대 상 : 시민 100명 선착순 모집 (무료)

주 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e Exchange Foundation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